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7>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법을 알아듣게 그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가르침을 준 것을 교(敎)라고 한다. 이것들이 모여 팔만대장경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원을 <선가귀감> 5장에서 말한다.

一代所說者 爲教門 故曰 禪是佛心 教是佛語

세존이 한평생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가르침을 준 것이 모여 팔만대장경이 된다. 그러므로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敎)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 뜻을 잘못 알고 오로지 공(空)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소승교라고 한다. 오로지 공(空)만 주장하여 모든 것을 부정하다 보면 허무주의나 무기력한 삶에 빠지게 쉽다.

'소승(小乘)'이란 작은 수레란 뜻인데 보통 공(空)에만 집착하여 폭이 좁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성문(聲聞)과 연각(緣覺)이 여기에 해당되므로 이승(二乘)이라고도 한다.

대승교(大乘敎)란 무엇인가? '대승(大

이라는 가르침이다. 여기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경론(經論)이 없지만 이와 같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모두 문교라고 한다.

원교(圓敎)란 무엇인가?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안팎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오묘한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것이다. 부처님의 근본 뜻은 중도실상(中道實相)에 있으므로 이것을 올바르게 드러낸 가르침이다.

모든 중생이 거울 속의 모습이나 물 속의 달과 같아서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끝내 어떤 실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삼제(三諦)의 도리가 완전히 구족되어 있다. 대표적인 경전이 <화엄경>과 <법화경>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도리를 <화엄경>에서 '참으로 놀랍고 놀랍도다. 모든 중생들이 다 여래의 지혜와 공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분별망상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말씀하셨다.

팔만대장경은 중생 근기 맞춰
여기서 '한평생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가르침을 준 것'은 부처님이 49년 동안 말씀하신 인천교, 소승교, 대승교, 문교, 원교의 다섯 가지 가르침을 말한다.

인천교(人天敎)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면서 좋은 일만 하라고 일러주는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따르면 다음 세상에 복이 많은 인간이나 하늘에 사는 하늘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도덕적인 가르침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아도 좋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부처님이 쓰신 자비로운 방편이다.

소승교(小乘敎)란 무엇인가? 복을 지어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도 그 복이 다하면 다시 중생계에 윤회해야 하는 것이 중생의 운명이나, 실체가 없는 중생의 허망한 삶에 집착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중생 삶에 대한 집착을 떠나 온갖 번뇌를 끊는 공(空) 체험으로써 부처님 세상을 찾으라는 것이다.

49년간의 법문 나눠보면 인천·소승교 등 다섯 가르침

乘)은 큰 수레란 뜻이다. 많은 중생들과 함께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들의 큰 뜻을 말한다. 소승처럼 공에만 집착하여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중생들과 함께 부처님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중불교 운동이다.

부처님이 공(空)을 말씀하시는 것은 온갖 번뇌를 끊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의 세상을 드러내고자 한 것인데, 소승들은 그 뜻을 모르고 공(空)에만 집착하여 나쁜 경계에 빠진 채 주저앉아 있으므로 그 반작용으로 일어나게 된 개혁 불교이다.

돈교(頓敎)란 무엇인가? 소승이다 대승이다 말씀을 하지만 사실 '한 생각 풀이키면 서있는 그 자리가 모두 부처님의 세상'

가섭과 아난이 선과 교를 갈래
자다

이 많은 가르침들은 모두 부처님을 따라 다니면서 모든 법문을 듣고 외워놓았던 총명한 제자 아난에 의하여 이 세상에 전해진다. 가섭이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아 선종(禪宗)의 초조가 되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난에 의해 정리된다. 선(禪)과 교(敎)의 근원은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선과 교로 갈라지게 된 것은 가섭과 아난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말 없으므로써 말이 없는 곳에 이르러가 하는 것이 선이요, 말로써 말이 없는 곳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교이다. 마음은 선법(禪法)이요 말은 교법(敎法)이다. 법은 한 맛이라도 양쪽의 견해는 하늘과 땅 차이 만큼이나 크니, 이것으로 선과 교의 두 갈래 길을 잘 분별해야 할 일이다. 서산 스님은 계승으로 말한다.

不得放過 掌裡橫身
일어나는 한 생각도 놓치지 마라
차기를 풀 속에 옆으로 누우라.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스님 성에 '석(釋)' 씨가 많은 까닭?

성(姓)은 한 집안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성은 씨족의 단결을 상징하는 구심점이었지요. 그런 성이 잘 집안에서도 연결을 합니다. 바로 '석(釋)' 씨입니다. 왜 그런지는 불자든 불자가 아니든 대략 짐작은 할 겁니다.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에서 왔다는 것을 알 것일겁니다.

그럼, 정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이 '석' 씨일까요? 아님니

다. 세속의 성씨는 '고오타마'이고, 이름은 '싯타르타'지요. 석가모니(釋迦牟尼)란 이름은 석가족의 출신의 성자(聖子, 모니)이란 뜻으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된 뒤에 붙여진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석가는 부족의 이름입니다. 인도말로 '사카(saka)'의 한자 표기지요. 모니도 '무니(muni)'의 한자표현입니다.

석자만 따서 출가자의 성씨로 쓰기 시작한 것은 중국 동진시대의 고승 석도안(釋道安: 314-385) 스님의 제안에 의해서지요. 이후 서서히 정착이 되면서, 오늘날에도 출가자의 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82)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28강 <금강경> 3장 : 아라한과 보살

지자부진, 더딘 강이가 이제 3장으로 들어섰다. 인해, 원문, 현대어역을 풀은 다음, 사설로 들어간다.

3장의 여러 번역들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일러시되, "諸 보살 마하살이 반드시 이같이 그 마음을 함복시킵지나: 一切 衆生 類, 卵生과 胎生과 濕生과 化生과, 有色과 無色과, 有相과 無相과, 非有相과 非無相을, 모두 無餘열반에 들게 하여, 滅度하노니, 이같이 無量無數無邊 중생을 滅度하되, 실로 중생이 滅度 得한 이 없으니. 어찌어뇨? 수보리아! 만일 보살이 我相과, 人相과, 衆生相과, 壽者相이 있으면 곧 보살 아니라."

佛告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降伏其心, 所有一切衆生之類, 若卵生, 若胎生, 若濕生, 若化生, 若有色, 若無色, 若有想, 若無想, 若非有想, 非無想, 我皆令入無餘涅槃而滅度之,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 實無衆生得滅度者, 何以故, 須菩提, 若菩薩有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即非菩薩.

붓다께서 수보리에게 일러 주었다. "어려 보살마하살은 반드시 이렇게 그 마음을 함복시켜야 한다. 그 모든 중생들, 앞에서 나는 것, 자궁에서 나는 것, 젖은 곳에서 생긴

것, 번이로 생긴 것, 그리고 신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의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의식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 등, 이 모든 생명을 '찌꺼 남김 없는 열반(無餘涅槃)'에 들게 하여 구제하겠다고... 그러나 이처럼 해일 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한다 해도, 기실은 어느 생명 하나도 구원한 적이 없다. 왜냐? 수보리아, 만일, 보살이 '나'라는 생각, '자아'라는 생각, '생명'이라는 생각,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라한과 보살

보살이라는 이름은 이제 흔해졌다. 절간에서 공양을 담당하거나 다른 수고로 봉사하는 사람들, 또는 그 절을 찾는 신도 아가씨 아줌마, 할머니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러나 보살은 본래 '드문' 이름이었다. 그것은 분시 대승의 최고 인격형을 가리켰던 말이다.

소승과 대승을 가르는 수많은 지표가 있고, 분분한 논란이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두 우파가 내세우는 이상적 인격의 모델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아라한의 목표는 자기 구원이다. 붓다는 대승의 전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가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문을 나서서, 높고 꼬부라지고, 병들어 신음하며, 오물을 덮어쓰고, 마침내 죽어 장작불에 사라지는 삶의 현실을 부정하고 불멸을 얻기 위해 출가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 동기는 개인적 사적인 것이었다. 그가 보리수 아래의 깨달음을 얻고 난 후, 자신의 깨달음이 일반인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그래서 비롯음을 살가봐 처음에는 혼자 그 비밀을 안고 가려 했다. 그러나 또 전설에 의하면, 범천 사립파티의 "너무 비관하지 마라. 정신적 성숙에 무의의은

행복동 사람들

업의 크기
배종훈 (bjh4372@hanmail.net)

작으나 크나 선행은 선행이고 악행은 악행입니다.

보살마하살에겐 자의식이 없다



리를 다란 듣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고, 2) 한편 '무소처럼' 홀로 깨달음을 즐긴 뿐, 그 깨달음을 나누어주지는 않으려는 사람들 연각(緣覺), 혹은 벽지불이라 하여 배척했다. 이들을 일러 이승(二乘), 즉 '두 개의 작은 수레에 탄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이에 비해 대승은 자신들의 새로운 길을 보살승(菩薩乘), 즉 '영웅들의 수레'라고 불렀다.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남과 더불어 깨

내게 문제는 없다
단도직입, 붓다의 대답은 의외이다. 2장의 질문을 보고, 우리는 붓다가 "그래, 큰 발심을 했군. 위대한 영적 인간, 보살마하살이 되려면 말이야, 우선 마음속의 이런 습관을 이렇게 고치고, 이런 장애는 이렇게 제거하며, 구체적 수련법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 등등 조언이 이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다. 기이한 어

법이다. 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마음을 유지하고 지켜야 하나에 대해 그는 다만 "다른 사람들이 이끌고 구원하더라도 그런 자의식이나 자만심을 갖지 말라"고만 일러줄 뿐이다. 지금 붓다는 보살 '개인의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보살은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 붓다는 보살이 상구보리(上求菩提)를 마친 다음, 이제 하화중생(下化衆生)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 것이냐를 가르치려 한다. 보살은 모든 생명, 즉 중생을 연민하며, 그들을 더 이상의 문제거리나 심리적 찌꺼기가 남아 있지 않은 지고의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고자 애쓴다.

이것은 일반적 해석이다. 그러나 미리 언급하자면 나는 두 번째 해석에 기운다.

2) 돈교,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받아부 경전,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해능 돈교의 취지에 의하면 "구원은 이미 성취되어 있다." 무엇을 하려는 태도, 무엇을 의식·의도적으로 이루려는 유위(有爲)의 태도야말로, 목표에 가로놓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돈교는 이미 있는 자신을 믿고, 그 전체인 불성을 보듬고 존중하라고만 가르친다. "네가 더 이상 해야 할 일은 없다!" 나아가서 말한다. "네가 무엇인가를 하려다도 그것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때, 단단히 주의해야 할 것은 가슴 속에 따라 들고 있는 자만심과 허세이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거나, "내가 너를 가르치고 도와준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공덕을 깨먹고 오히려 사대를 약화시킨다. 일반적으로나, 혹은 자아의 심리적 방해가 없을수록 관계는 더 만족스러워진다. 이보다 더 분명한 진실은 없다. 그 '비움'의 극점에 보살이 있고 마하살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